**인간과 공생은 뗄 수 없다**

**20195124 김민석**

우리는 살면서 공생과 기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한번 듣는다. 공생과 기생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개념들이다. 하지만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기적인 인간과 공생하던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호모 심비우스에서 심비우스는 ‘함께’라는 뜻과 ‘삶’이라는 뜻이 결합된 단어이다. 이것은 다른 생물종이나 인간과 공생하는 인간을 뜻한다. 고대에서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을 “남과 사이좋게 지내지만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아니하는 사회적 동물”[[1]](#footnote-1) 이라고 일컬어왔다. 미래에는 이기적인 인간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모든 생물들과 공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종들과 공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채집과 수렵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쌀, 옥수수 등이 있다. 그리고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식물로서 영국의 수탈을 받던 아일랜드에서 주식으로 삼은 감자도 전쟁 등을 통해 재배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인간에 유익한 식물이다.

또한, 인간만 공생을 하지 않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로 공생을 하면서 위험천만한 시기를 견뎌왔다. 예를 들어 감, 포도, 딸기 등과 같이 동물이 식량으로 이용함으로써 널리 퍼지는 식물들이 있다. 아니면 먹이를 받고 지켜주는 개미와 진드기 같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공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인간을 넘어서 모든 종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과 공생을 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동식물은 오랫동안 공생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경쟁하기에 바쁘니 기술적으로는 진보한 사회일지라도 인간 개개인은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다시 공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의에 적게는 수십 년을 공생해온 생물종들에게 제대로 배워야 한다. 적어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더 발전한 인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 최재천,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호모심비우스: 이기적인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이음, 2016), 108쪽. [↑](#footnote-ref-1)